

【기획논문】

1980-90년대 부산 기업의 역외이전

김 대 래\*

목 차

|                 |                     |
|-----------------|---------------------|
| I. 서론           | IV. 이전의 사유와 원인      |
| II. 과잉성장과 축적제약  | 1. 설문조사 결과          |
| 1. 지가상승         | 2. 이전의 원인           |
| 2. 공업용지의 부족     | V. 제조업의 침체와 광역화의 한계 |
| 3. 대도시 성장 억제 정책 | 1. 제조업의 침체          |
| III. 역외이전 추이    | 2. 광역화와 그 한계        |
| 1. 지역별 추이       | VI. 결론              |
| 2. 업종별 추이       |                     |
| 3. 규모별 추이       |                     |

<국문요약>

본 논문은 1970년대 말 이후 부산에 입지하였던 기업들의 역외이전에 관한 것이다. 부산기업의 역외이전은 1980년대 이후 부산경제 침체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지만, 정작 이전의 실태에 관해서는 거의 분석이 없었다. 그러한 연구상의 공백을 메움과 동시에 기업이전의 영향과 의미에 관해 파악해 보려고 하였다.

부산의 기업이 역외로 이전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후반부터였다. 부산기업의 역외이전은 과잉성장의 결과였는데, 부산이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팽창하면서 과잉성장 도시의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인구의 증가는 주택수요의 증가와 함께 지가상승을 가져왔고, 공업용지의 고갈은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였다. 더욱이 부산은 서울과

---

\* 신라대학교 국제통상학부

함께 성장억제도시로 지정되면서 부산 역내에서의 공장 신·증축에는 높은 지방세가 부과되었다. 이러한 상황의 복합적인 결과로 1970년대 말부터 부산의 기업들은 역외로 떠나기 시작하였다.

부산에서 상대적으로 비싸진 토지를 팔고 대신 부산 외곽지역에서 싸고 넓은 용지를 찾아 떠나는 것이 역외이전의 핵심이었다. 부산의 지가를 인근지역보다 낮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윤극대화를 위해 입지를 결정하는 기업의 행동을 규제하기는 어려웠다. 용지의 확보가 이전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었다는 것은 실태조사에서도 밝혀졌다.

부산을 떠난 기업들은 주로 대부분 양산과 김해에 자리 잡았다. 부산의 주력업종인 기계금속과 화학고무업종 등 주력업종 업체들이 역시 많이 이전하였다. 그리고 기업규모가 클수록 먼저 이전하였다. 1980년대까지 이전기업 숫자 자체는 많지 않았지만 정작 큰 기업들은 이 때 많이 이전하였다. 이전업체수가 급속히 증가한 것은 1990년대 이후였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체도 이전하기 시작하였다. 그와 함께 수도권으로의 이전도 늘어났다. 정보통신산업의 발전과 함께 더 넓은 시장을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새로운 흐름이 나타난 것이다.

부산기업의 역외이전은 부산경제 특히 제조업의 침체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었다. 대기업이 떠나면서 제조업의 구조조정은 지연되었고, 새로운 산업을 받아들일 투자도 지체되었다.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혁신역량을 충분히 누릴 수 없었던 부산경제가 성장의 활력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웠다. 기업이전이 시작되었던 시기부터 제조업의 상대적 침체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부산제조업은 비중하락을 겪었다. 그 결과 전국에서 접하는 부산경제의 비중이 동반 하락하면서 일자리의 부족과 인구유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런 한편 부산기업의 역외이전은 부산경제의 광역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부산경제의 광역화는 반쪽 광역화였다. 중추관리기능의 집적이 상대적으로 약한 부산은 서울과는 달랐다. 대도시 성장억제정책의

주된 목표였던 서울의 집중현상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부산의 성장만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하였다. 서울은 제조업을 인근지역으로 보내고 중추관리기능을 중심으로 한 산업을 발전시켰지만 부산은 그러지 못했다.

부산기업의 역외이전과 함께 온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은 결국 산업용지의 확보를 통한 기업의 유치와 중추관리기능의 확충이 될 수밖에 없다. 새로운 기업을 부산으로 유치하고 떠나간 기업까지 부산경제의 순환권내로 끌어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부산으로의 기업이전이 많아지고 광역교통망이 확충되는 것은 부산기업의 이탈이 가져왔던 침체를 극복하는 새로운 경향이라 할 수 있다.

\* 주제어: 부산, 기업이전, 광역화, 중추관리기능, 성장억제도시, 공업용지

## I. 서론

부산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던 부산기업들의 역외이전이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다. 과거에 비해 이전하는 기업수가 줄어들고, 다른 한편에서는 외지에서 부산으로 들어오는<sup>1)</sup> 기업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부산기업의 역외이전이 시작된 1977년을 기점으로 볼 때 이미 40년에 가까운 부산기업의 역외유출은 최근의 흐름으로 쉽게 상쇄될 수는 없다.

그 동안 기업들의 부산탈출은 부산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 부산경제의 침체론이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다름 아닌 부산기업들의 역외이전이 일어난 직후부터였다. 그리고 1990년대 들어서면서 본격화되는 대규모의 부산인구의 순유출 또한 가속화되는 기업

---

1) 부산광역시, 『2003년 부산경제백서』, 2004, 33쪽. 지역기업의 역외이전과 함께 역내전입을 제목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은 『2003 부산경제백서』에서 부터이다.

이전의 누적된 영향의 산물이었다.

그런 한편 부산기업들이 주로 이전하였던 양산과 김해지역에서의 기업집적과 인구증가는 부산기업의 탈출이 만들어 낸 또 다른 현상이었다. 크게 보면 부산기업의 탈출은 부산권 경제의 광역화를 수반하였다. 그러나 서울과 달리 부산은 부산에서 떠나간 기업들을 광역권 내로 끌어들이는 중추관리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함으로써 광역화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였다.

이처럼 부산기업의 역외이전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에 반해 그에 관한 연구는 별로 없었다. 역외이전이 부산경제의 약화를 가져온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기 때문에 정면에서 다루고 싶지 않았던 주제였을 수도 있다. 실제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하였던 부산기업의 역외이전 통계는 2004년<sup>2)</sup>부터는 아예 발표조차 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역외이전이 부산경제에 얼마만큼 치명적이면서도 민감한 것이었는가를 잘 말해준다.

본 논문은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된 부산기업의 역외이전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는 무엇보다 그 동안 40년 가까운 시기 동안 이루어진 부산기업의 역외이전 실태를 정리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기업이전 자료들이 단편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들을 종합하여 체계적인 자료를 만들 것이다. 둘째는 이러한 자료정리를 기초로 부산기업의 역외이전 실태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해 볼 것이다. 업종별, 지역별 그리고 규모별로 이전기업의 실태를 분석할 것이다. 셋째는 부산기업들의 역외이전이 부산과 인근지역에 가져온 영향과 그 의미에 관해 살펴볼 것이다.

분석의 시기는 1977년부터 2006년까지로 하였다. 2003년까지 공식적으로 자료가 발표되었고, 이후 3년간의 자료는 부산상공회의소의 협조를 받아 추가하였다.

---

2) 부산상공회의소, 『2004-2006 부산경제백서』, 2007, 342쪽.

## II. 과잉성장 과 축적 제약

부산기업들의 역외탈출의 직접적인 원인은 기존 공장용지를 비싸게 팔고, 값싸고 더 넓은 공장용지를 찾아 떠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원인의 생성에는 더 깊은 배경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부산경제의 성장 자체에서 배태되었다.

### 1. 지가상승

해방에서 1980년대 말까지 부산을 숨 가쁘게 몰아친 것은 건잡을 수 없는 인구증가였다. 해방 당시 인구 30만명의 도시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부산은 이후 선제적인 도시계획을 거의 수립할 수 없었다. 도시계획에 따라 인구가 늘어나기 보다는 인구의 증가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도시계획의 중심과제였다. 무엇보다 인구의 급증은 교통난과 주택난을 비롯한 심각한 도시문제를 발생시키면서 도시공간 재편의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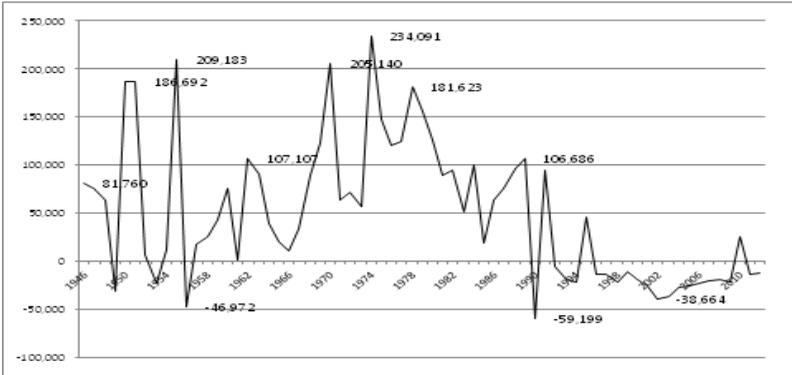
해방이 된 1945년에 28만여명이었던 부산인구는 1955년 100만명을 넘어섰는데, 해방 후 10년 사이에 76만 8천여명이 증가하였다.<sup>3)</sup> 이후 1968년에 150만을 넘어섰고, 1972년에는 200만을 돌파하였다. 그리고 1979년에는 300만명을 넘어섰다. 1970년대 부산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7년 사이에 100만명이 늘어났다. 인구의 증가폭이 가장 컸던 해는 1974년으로 한 해에 234,091명의 증가가 있었다.<sup>4)</sup>

3) 단순 산술평균을 하면 매년 8만여명에 가까운 인구가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해방직후 28만여명의 인구에 비교하면 8만여명은 매년 1945년 인구의 약 30%에 해당하는 인구의 증가가 있었던 것이 된다.

4) 1973년 2,071,950명으로 막 200만을 넘었는데, 그 뒤 해인 1974년에 10%가 넘는 증가가 있었던 것이다. 그 다음으로 인구의 증가가 많았던 해는 1955년의 209,183명이었다. 휴전 후 전후 부흥기에 부산으로 사람들이 밀려들었던 사정의 반영이다. 1970년에도 205,140명으로 20만명 이상의 증가가 있었던 해였다. 1969년의 인구가 1,675,570명이었음을 감안하면 205,140명의 인구증가는 1974년보다 절대수는 작지만 인구증가압력 자체는 더 높은

〈그림 1〉 부산인구의 연도별 증감

(단위: 명)



자료 : 부산시, 『부산시통계연보』, 각 년도.

〈그림 1〉은 부산인구의 증감을 나타낸 것이다. 한해 10만명이 넘는 인구증가가 있었던 해는 한국전쟁기를 제외하고도 13개 연도에 달했다. 1960년대에는 1962년과 1969년에 10만명이 넘는 인구증가가 있었다. 1970년대에는 초기 3년을 제외하고 매년 10만명이 넘는 인구의 증가가 있었다. 1980년대에도 인구증가의 압력은 계속되었는데, 1989년까지 계속되었다<sup>5)</sup>.

이러한 인구의 급속한 증가는 심각한 주거난을 수반하였다. 특히 1970년대 이후 고도성장과 함께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심각한 부동산투기 열풍이 몰아쳤다. 도시문제 해결의 가장 큰 과제로서 주택난 해결이 떠올랐고, 이것은 토지에 대한 수요증가와 지가의 상승을 가져왔다.

해였다고 할 수 있다.

5) 1990년부터 인구의 감소가 시작되었다. 1990년에는 10만명이 넘게 증가하였던 전해와는 달리 59,199명의 감소가 있었다. 1991년 다시 94,707명의 증가로 반전되었지만 곧 다시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이후 몇 년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년 인구의 감소가 이어졌다.

그 결과 도심 한 가운데에 입지한 공장의 경우 토지매각의 유인이 커지게 되었고, 그 땅에 아파트를 지을 경우 막대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유인이 생겼다. 현실적으로 부산의 지가를 인근지역보다 낮추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윤극대화를 위해 기업들은 값싼 부지를 찾아 외곽으로 이전하였는데, 이러한 입지변경을 결정하는 기업 행동은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었다.<sup>6)</sup> 또한 급속한 도시의 성장에 따른 공장과 주택, 상가 등의 혼재로 발생된 공해가 주거환경을 악화시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비공업지역내 공장의 이전을 촉진하였다<sup>7)</sup>.

## 2. 공업용지의 부족

과잉성장의 또 다른 문제는 산업용지의 급속한 고갈이었다. 물론 용지부족 문제는 부산의 태생적인 한계다. 부산의 지형은 배산임해형으로 산지와 녹지가 도시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가용토지가 매우 협소하다. 산지와 녹지가 1972년에는 시역의 61.8%를 차지하였다. 2002년 무렵에는 도시면적이 1970년대에 비해 2배 이상 증대하였다. 그러나 산지와 녹지의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여 70%가 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1971년 도입된 그린벨트 제도에 의해 당시 시역의 23%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었다. 당시 시역은 373.23km<sup>2</sup>였는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86.2km<sup>2</sup>에 달하였다.<sup>8)</sup>

부산의 공업용지 확보에 결정적 기여를 한 것은 사상공업지역의 조성이었다. 1963년 직할시 승격과 함께 부산으로 편입된 사상지역은 곧 부산기업들의 공업용지 확보의 구명줄이었다. 1965년 3월 25일 건

6) 부산광역시, 『1998-2000 부산경제백서』, 2002, 566쪽. 참조

7) 부산직할시, 『시정백서』, 1994, 298~300쪽.

8) 부산광역시, 『앞의 책』, 2002, 95쪽. 개발제한구역은 대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와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하기 위하여 1971년 11월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설부인가 제555호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고시되어, 1968년 11월 29일~1975년 3월 13일에 걸쳐 9.73km<sup>2</sup>의 공업용지를 조성하였다. 이는 부산시 전체 공업지역 면적 30.88km<sup>2</sup>의 약 30%에 달하는 부산의 대표적인 공업지역이었다.<sup>9)</sup>

1982년 말 현재 부산시 공장의 38.3%인 1,443개 업체가 사상공업지역에 입지하고 있었는데, 특히 기계, 화학공업 등 주거지역에 입지가 곤란한 공해성 공장의 약 50%가 사상공업지역에 입지하고 있었다. 사상공업지역으로의 이주는 1970년대 말이 정점이었다. 1970년대 후반까지 늘어나던 입주기업은 1979년을 정점으로 점점 둔화되기 시작하였다.<sup>10)</sup> 그러나 포화상태가 된 뒤에도 사상공업지역은 대체공단의 조성이 지지부진하면서 부산의 대표적인 공업지역으로 기능하였다. 1985년 사상공업지역에는 부산시 전체 공업의 40%가 입지하고 있었으며, 시 전체 공업지역 면적의 약 30%를 점하고 있었다.<sup>11)</sup> 1990년에도 사상공업지역에는 부산시 전체공업의 39%인 2,412개 공장이 입지하였다.<sup>12)</sup>

사상공업지역 조성 뒤 부산에 법정공단이 만들어 진 것은 1984년으로 신평장림공단이 완공되었다. 그러나 신평장림공단은 그 규모가 27만여 평에 불과하여 부산기업들의 산업용지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다.<sup>13)</sup> 신평장림공단에는 1989년 말 현재 129개 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116개 업체가 입주 완료하였고, 13개 업체는 연내 입주할 예정이었다.<sup>14)</sup> 신평장림공단의 수용기업수는 많지 않았다.

---

9) 부산직할시, 『시정백서』, 1984, 300쪽.

10) 부산직할시, 『앞의 책』, 1984, 300~301쪽. 사상공업지역 내에는 부산시 공장의 36.6%인 1,576개 업체가 입지하고 있으며 특히 기계, 화학 등 주거지역에 입지가 곤란한 공해성 공장이 약 68% 입지하고 있다. 부산직할시, 『시정백서』, 1985, 303쪽.

11) 부산직할시, 『앞의 책』, 1985, 302쪽.

12) 부산직할시, 『시정백서』, 1990, 348쪽.

13) 부산광역시, 『앞의 책』, 2002, 96쪽.

14) 부산직할시, 『시정백서』, 1990, 350쪽.

이러한 한계 때문에 1970년대 말부터 낙동강 임해공단조성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1990년 낙동강 하구언이 만들어졌으며, 1989년 명지녹산산업기지 개발구역이 지정고시 되고, 1999년 녹산공단 1단계가 준공되었으며, 이듬해인 2000년 2단계가 완공되었다. 그리고 1993년부터 신호지방산업단지가 개발되기 시작하였다.<sup>15)</sup> 1989년에는 정관농공단지(8만평), 1992년에는 신평장림협업화단지(59만평)가 조성되었다.<sup>16)</sup> 그러나 대규모의 임해공단 조성은 훗날 그린벨트의 해제를 기다려야 했다.

### 3. 대도시 성장억제정책

부산의 과잉성장은 중앙정부의 눈에도 심각하게 비쳤다. 1960~1970년대 경제개발 과정에서 서울과 부산에 인구와 경제력 등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자 정부는 대도시 성장억제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 1) 지방세 5배 초과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른 과밀화 문제를 막기 위해 1970년대 들어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에 신규로 입지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5배 초과시책을 추진하였다.<sup>17)</sup> 대도시 내 지방세 5배 초과제도는 1972년 1월 1일 인구 및 경제력의 도시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도입된 정책세제인데, 법인이 대도시내에서 공장의 신설, 증설, 공장의 승계 취득,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공장이전 및 업종변경에 따른 부동산 취득 등기 시 취득세 및 등록세를 5배 초과하는 제도이다.

지방세 초과제도는 1972년 신설되어 1973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이래, 부작용이 발생할 때마다 그 대상과 범위를 개정하였으나, 근본적인 입법취지는 유지되어 왔다. 그 결과 기업경영상 양질의 노동력 확

15) 부산광역시, 『앞의 책』, 2002, 99쪽.

16) 부산광역시, 『앞의 책』, 2002, 98쪽.

17) 부산광역시, 『앞의 책』, 2202, 92쪽.

보와 대도시내 입지가 불가피한 도시형 업종이 중과세 대상으로 묶여 경영활동을 저해 받았으며, 도심 내에 산재한 중소기업의 생산시설 개보수 및 시설확대를 위한 설비투자에도 애로로 작용하였다.

산업용지 부족에다 지방세마저 중과됨으로써 생산시설의 신증설이 필요한 부산의 대다수 업체들은 시외이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지방세 중과제도는 1995년 8월 21일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중과대상 대도시에서 부산을 제외함으로써 부산에서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sup>18)</sup>

## 2) 제한정비지역 지정

이와 함께 정부는 공업배치법에 근거하여 부산일원을 제한정비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제한정비지역은 산업의 입지도와 인구증가율이 현저히 높아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또한 1982년부터 시작된 제2차 국토계획에서 정부는 서울과 부산을 성장억제 및 관리 도시로 지정하여 각종 규제책을 실시하였다. 서울과 부산은 거대도시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공업구조를 전환하고 용도지역 위반 공장 및 부적격공업의 이전을 촉진함과 동시에 도시재개발을 통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에서 이전하는 공장을 수용할 수 있도록 반월, 화성, 평택 등 서해안의 적지에 지방공단을 조성하며, 부산에서 이전하는 공장은 1차적으로 창원 또는 장림지구에 재배치하고 주변의 김해·양산·밀양 등에 지방공단을 조성하여 부산의 입지수요를 외곽지역으로 흡수토록 하였다.<sup>19)</sup>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기업들의 부산내 신규투자를 억제하였으며, 시외이전을 촉진하였다.

---

18) 부산광역시, 『앞의 책』, 2002, 93쪽.

19) 부산광역시, 『앞의 책』, 2002, 93쪽.

〈표 1〉 지역별 역외이전 사업체수 추이

(개)

| 구분   | 1977 | 1978 | 1979 | 1980 | 1981 | 1982 | 1983 | 1984 | 1985 | 1986 |
|------|------|------|------|------|------|------|------|------|------|------|
| 계    | 2    | 5    | 6    | 21   | 18   | 18   | 12   | 13   | 7    | 12   |
| 양산   | 1    | 2    | 1    | 9    | 9    | 11   | 7    | 7    | 2    | 6    |
| 김해   | 0    | 1    | 1    | 6    | 3    | 3    | 2    | 2    | 4    | 2    |
| 창원마산 | 1    | 2    | 1    | 2    | 3    | 2    | 1    | 1    | 1    | 2    |
| 기타경남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울산   | 0    |      |      | 1    | 1    | 1    |      |      |      |      |
| 서울   | 0    |      |      |      |      |      |      |      |      |      |
| 경기   | 0    | 0    | 0    | 1    | 2    | 0    | 2    | 0    | 0    | 0    |
| 대구경북 | 0    | 0    | 2    | 1    | 0    | 0    | 0    | 0    | 0    | 0    |
| 광주전남 | 0    | 0    | 0    | 0    | 0    | 1    | 0    | 0    | 0    | 0    |
| 전북   | 0    | 0    | 1    | 0    | 0    | 0    | 0    | 0    | 0    | 0    |
| 강원충청 | 0    | 0    | 0    | 1    | 0    | 0    | 0    | 2    | 0    | 0    |
| 기타   | 0    | 0    | 0    | 0    | 0    | 0    | 0    | 1    | 0    | 2    |
| 구분   | 1987 | 1988 | 1989 | 1990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 계    | 16   | 21   | 99   | 102  | 97   | 106  | 91   | 130  | 110  | 147  |
| 양산   | 2    | 10   | 34   | 46   | 31   | 52   | 63   | 64   | 82   | 128  |
| 김해   | 10   | 9    | 25   | 39   | 27   | 20   | 10   | 43   |      |      |
| 창원마산 | 2    |      | 15   | 1    | 11   | 4    | 4    | 3    | 13   | 6    |
| 기타경남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울산   | 2    |      | 13   | 4    | 16   | 12   | 4    | 5    | 4    | 6    |
| 서울   |      |      |      |      |      |      |      |      |      |      |
| 경기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대구경북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광주전남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전북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강원충청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기타   | 0    | 2    | 12   | 12   | 12   | 18   | 10   | 15   | 11   | 7    |
|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 계    | 176  | 164  | 141  | 247  | 251  | 296  | 381  | 234  | 189  | 205  |
| 양산   | 146  | 127  | 105  | 177  | 179  | 146  | 197  | 51   | 38   | 31   |
| 김해   |      |      |      |      |      | 55   | 56   | 61   | 74   | 82   |

|      |   |    |    |    |    |    |    |    |    |    |
|------|---|----|----|----|----|----|----|----|----|----|
| 창원마산 | 7 | 6  | 7  | 11 | 14 | 10 | 20 | 5  | 6  | 2  |
| 기타경남 | 3 | 0  | 0  | 0  | 0  | 0  | 0  | 35 | 20 | 16 |
| 울산   | 8 | 13 | 3  | 16 | 10 | 20 | 24 | 9  | 10 | 18 |
| 서울   | 5 |    |    |    | 24 | 24 | 53 | 28 | 14 | 25 |
| 경기   | 2 | 0  | 0  | 0  | 0  | 0  | 0  | 23 | 10 | 14 |
| 대구경북 | 3 | 0  | 0  | 0  | 0  | 0  | 0  | 7  | 9  | 8  |
| 광주전남 | 1 | 0  | 0  | 0  | 0  | 0  | 0  | 5  | 3  | 6  |
| 전북   | 0 | 0  | 0  | 0  | 0  | 0  | 0  | 1  | 0  | 0  |
| 강원충청 | 1 | 0  | 0  | 0  | 0  | 0  | 0  | 9  | 5  | 3  |
| 기타   | 0 | 18 | 26 | 43 | 24 | 41 | 31 | 0  | 0  | 0  |

자료 : 부산시, 『시정백서』, 각 년도 ; 부산시, 『2001 부산경제백서』, 2002, 2002, 332~333쪽 ; 부산시, 『2002 부산경제백서』, 2003, 306~307쪽; 부산시, 『2003 부산경제백서』, 2004, 299쪽 ; 부산상공회의소, 『2004년 상반기 부산지역 시외이전 및 전입기업체 현황』, 2004, 3쪽; 부산상공회의소, 『2003년 상반기 부산지역 시외이전 및 전입기업체 현황』, 2003, 2쪽 ; 부산상공회의소, 『2003년 시외이전 및 전입기업체 현황』, 2004, 4쪽에서 작성

주 : 1. 연도별 분류에 차이가 있음. 서울의 경우 경기를 포함할 때도 있음. 2. 기타로 분류된 업체가 많은 연도는 세분류로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임. 3. 김해의 통계가 없는 해는 양산에 포함되어 있음. 4. 2004~2006년 통계는 부산상공회의소 내부 자료에서 구함.

### Ⅲ. 역외이전 추이

#### 1. 지역별 추이

1977년에서 2006년까지 부산에서 다른 지역으로 나간 기업은 총 3,317개였다. 30년 동안에 연 평균 100개의 유출이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말까지 진출기업은 10개 미만이었다. 1980년부터 1988년까지도 연 진출기업수는 대체로 20개를 넘지 않았다. 진출기업이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하였던 것은 1989년이였다. 1988년의 21개에서 1989년에는 99개로 늘어났는데, 이러한 추세는 10년 동안 이어졌다. 1999년 진출기업수는 144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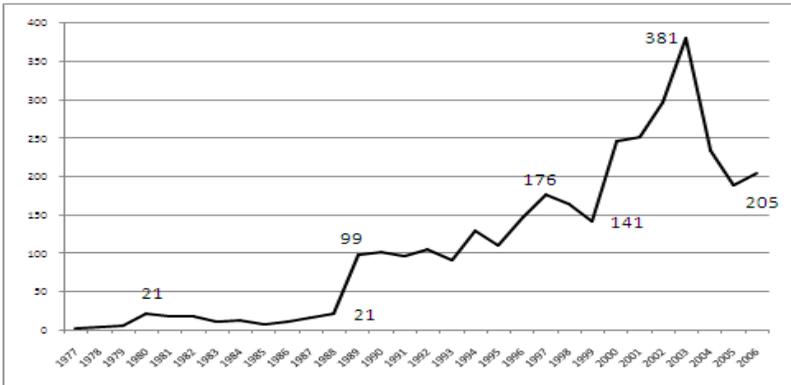
2000년부터는 진출기업수가 200개를 넘어섰고, 2003년에는 381개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후 줄어들었지만 2006년도에도 진출기업수는 205개였다. 1977~1989년 사이에는 연평균 이전업체수가 19개에 불과하였으나 시외이전이 본격화 된 1990년 이후로는 연평균 120여개 업체가 역외로 이전하였다.<sup>20)</sup> 이전기업수로만 본다면 1990년대 이후 붓물처럼 기업들이 부산을 떠났다.

이러한 부산기업의 역외이전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2>이다. 1980년대 말까지는 진출기업수가 많지 않았다. 1980년대 말에 갑자기 증가하였고, 그러한 증가세는 1980년대를 통하여 유지되었다. 그러다 1990년대 초중반에 더욱 늘어나기 시작하여 1990년대 말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1970년대 말에서 1990년대 말까지는 대체로 10년 단위의 이전 흐름을 보여주었다. 그러다 2000년에 들어오면서 폭발적인 증가를 보였다. 1999년에 비해 2003년에는 2배가 넘게 늘어났다. 2003년을 정점으로 이후 많이 줄어들었지만 2006년도에 아직 1990년대 말의 진출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그림 2> 부산기업의 역외이전

(개)



자료 : 부산시, 『부산시통계연보』, 각 년도.

20) 부산광역시, 『시정백서』, 1999, 541쪽.

한편, <표 2>는 2006년 이래 부산기업의 전출입을 나타내는 또 다른 자료이다. 이 자료에서 보면 2008년 이후 부산으로의 이전 기업이 부산에서 외지로 나가는 기업보다 많은 역전이 일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근년에 들어와 인근지역으로부터 기업들이 다시 부산으로 들어오는 흐름이 강하게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 통계는 <표 1>과 비교해 볼 때 연결성이 많이 떨어진다.

<표 1>에서 보면 2006년의 경우 전출기업수가 205개에 이르는데, <표 2>에는 66개로 나타나고 있어 많은 차이가 난다. <표 1>의 자료가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집계한 것인 반면, <표 2>의 자료는 부산시에서 발표한 것으로서 자료집계의 기준이 다른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서는 집계 기준의 통일성 때문에 <표 1>의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표 2>의 자료의 경우 최근의 흐름의 일단을 보여주는 참고자료로만 사용하기로 한다. 그리고 분석의 시기는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구할 수 있는 2006년 까지 만을 대상으로 하기로 한다.

<표 2> 최근 부산기업의 전출입 (개, 배)

| 구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전출    | 66   | 46   | 9    | 20   | 28   | 11   | 3    | 2    |
| 전입    | 27   | 43   | 36   | 25   | 58   | 63   | 78   | 85   |
| 전입/전출 | 0.4  | 0.9  | 4.0  | 1.3  | 2.1  | 5.7  | 26.0 | 42.5 |

자료 : 『부산일보』, 2014. 1. 8. 15면.  
 주 : 원 출처는 부산시

결국 부산기업의 이전 주 대상지역은 양산과 김해였다. 김해와 양산 지역이 지역기업의 주 이전 대상지역으로 부각<sup>21)</sup>되었던 것은 이들 지역의 지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공장부지의 확보가 용이한 데다 이들

21) 부산상공회의소, 『2004년 상반기 부산지역 시외이전 및 전입기업체 현황』, 2004, 4쪽.

지역의 위치 또한 물품납품 등에 들어가는 물류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납품업체가 많은 부산의 실정에서는 모기업 소재지 인근으로 이전하는 것도 물류비 절감의 방안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이들 지역의 경우 부산외곽 도로확장 등 접근성이 강화되면서 부산과 광역교통망이 연결되어 있어 기존의 영업권 및 근로자의 확보가 용이했던 것도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공사수주와 관련하여 현장부근으로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도 기업이전에 해당한다.

한편, 2000년 이후 서울, 경기 등의 수도권 지역으로의 이전도 크게 증가하였다.<sup>22)</sup> 이것은 유통 및 정보처리업체를 위주로 내수시장이 보다 넓은 수도권으로 영업 활동영역을 넓히기 위해 이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3〉 기간별·이전지별 부산전출기업수 및 구성비 (개, %)

| 구 분         | 1977-1986 |       | 1987-1996 |       | 1997-2006 |       | 1977-2006 |      |
|-------------|-----------|-------|-----------|-------|-----------|-------|-----------|------|
| 계           | 114       | 100.0 | 919       | 100.0 | 2,284     | 100.0 | 3,317     | 100  |
| 양산          | 55        | 48.2  | 512       | 55.7  | 1,197     | 52.4  | 1,764     | 53.2 |
| 김해          | 24        | 21.1  | 183       | 19.9  | 328       | 14.4  | 535       | 16.1 |
| 창원 마산       | 16        | 14.0  | 59        | 6.4   | 88        | 3.9   | 163       | 4.9  |
| 울산          | 3         | 2.6   | 66        | 7.2   | 131       | 5.7   | 200       | 6.0  |
| 양산+김해       | 79        | 69.3  | 695       | 75.6  | 1,525     | 66.8  | 2,299     | 69.3 |
| 양산+김해+마창    | 95        | 83.3  | 754       | 82.0  | 1,613     | 70.6  | 2,462     | 74.2 |
| 양산+김해+마창+울산 | 98        | 86.0  | 820       | 89.2  | 1,744     | 76.4  | 2,662     | 80.3 |

자료 : 부산시, 『시정백서』, 각년도 ; 부산시, 『부산경제백서』, 각 년도 ; 부산상공회의소, 『2004년 상반기 시외이전 및 전입업체 현황』, 2004, 3쪽 ; 부산상공회의소, 『2003년 상반기 시외이전 및 전입업체 현황』, 2003, 2쪽; 부산상공회의소, 『2003년 시외이전 및 전입업체 현황』, 2004, 4쪽.

주 : 1. 2004년 이후 자료가 발표되지 않았음. 2. 2004~2006년 자료는 부산상공회의소 내부자료

22) 부산상공회의소, 『2003년 시외이전 및 전입업체 현황』, 2004, 3쪽.

<표 3>은 <표 1>을 10년 단위의 기간별로 재정리한 것이다. 이 표에서 보면 1977~2006년 사이에 3,317개의 기업이 부산을 떠났는데, 이 가운데 53.2%인 1,764개가 양산으로 이전하였고, 그 다음은 16.1%의 김해로 535개였다. 양산으로 분류된 것 가운데에는 김해로 이전한 업체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양산의 비중이 다소 과대평가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부산이탈 기업이전지로 양산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이 김해로 나타나는 흐름에는 큰 변화가 없다. 그리고 창원·마산이 163개, 울산이 200개로 나타나고 있다.

1977~2006년 동안 양산과 김해로 이전한 기업체수를 합하면 그 비중은 69.3%로 약 2/3의 진출기업이 부산 인근의 양산과 김해로 이전하였다. 양산+김해+마산+창원으로 이전한 기업의 비중은 74.2% 그리고 양산+김해+마산+창원+울산 즉 기타경남을 제외한 동남권으로 이전한 기업의 비중은 80.3%에 이르고 있다. 다만 2000년 이후 서울을 포함할 수도권으로의 이전이 많아지는 것은 새로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 2. 업종별 추이

업종별로 이전추이를 보면 1990년대 접어들어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업종으로 이전이 확대되었다<sup>23)</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이전업체의 업종별 비중에서는 기계 및 조립금속업과 화학고무 제조업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실제 이들 업종의 이전업체수가 1989년에는 전체의 66.7%를 차지했으며, 1991년 71.1%, 1993년 71.4%, 1995년 70% 등으로 이들 업종의 이전업체수가 전체 이전업체의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특히 기계 및 조립금속업의 경우는 1989년에는 42개 업체가 이전한 후 1994년 59개, 1998년 87개 등으로 매년 급속히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sup>24)</sup>.

23) 부산광역시, 『앞의 책』, 2002, 97쪽.

24) 부산광역시, 『앞의 책』, 2002, 97쪽.

1990년 초까지 유통과 건설 등 서비스업체의 이전은 거의 없었다. 1977~1991년까지 유통 및 건설업체가 이전한 것은 3건에 불과하였다. 그러던 것이 1977~1998년 사이에는 유통·건설업체 95개와 기타업체 37개가 이전하여 비제조업체의 이전이 크게 늘어났다. 비제조업체의 이전 추이는 1992년 이래 본격화되었다. 1992년 이래 7년 동안 129개에 이르는 비제조업체가 이전하였는데 연평균 18.4개의 이전이 있었다.

〈표 4〉 업종별 역외이전 업체수

(개, 명, %)

| 구분     | 1977-91 | 1977-98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2001  |
|--------|---------|---------|--------|-------|-------|-------|-------|-------|-------|-------|
| 업체수    | 446     | 1,370   | 106    | 91    | 130   | 110   | 147   | 176   | 164   | 251   |
| 종업원수   | 40,180  | 72,021  | 12,524 | 2,459 | 4,234 | 2,419 | 3,473 | 3,280 | 3,452 | 1,953 |
|        | 90.1    | 52.6    | 118.2  | 27.0  | 32.6  | 22.0  | 23.6  | 18.6  | 21.0  | 7.8   |
| 음식료품   | 16      | 32      | 1      | 1     | 3     | 3     | 3     | 3     | 2     |       |
| 섬유의복   | 43      | 87      | 6      | 7     | 6     | 3     | 9     | 8     | 5     |       |
| 나무목재   | 20      | 52      | 10     | 4     | 5     | 3     | 5     | 3     | 2     |       |
| 종이인쇄   | 20      | 26      | 2      | 2     | 2     |       |       |       |       |       |
| 화학고무   | 103     | 240     | 22     | 17    | 31    | 21    | 13    | 19    | 14    | 22    |
| 비금속광물  | 11      | 23      | 2      | 3     | 2     | 3     | 1     | 1     |       |       |
| 철강     | 24      | 64      |        |       | 3     | 1     | 20    | 7     | 3     |       |
| 제1차금속  |         |         | 6      |       |       |       |       |       |       | 18    |
| 기계조립금속 | 191     | 643     | 46     | 48    | 59    | 56    | 66    | 89    | 87    | 65    |
| 기타제조   | 15      | 76      | 9      | 5     | 13    | 4     | 7     | 15    | 4     | 27    |
| 유통건설   | 3       | 95      | 2      | 4     | 6     | 16    | 23    | 31    | 10    |       |
| 기타     |         | 37      |        |       |       |       |       |       | 37    | 119   |

자료 : 부산시, 『1999 시정백서』, 1999, 541쪽 ; 부산광역시, 『2001 부산경제백서』, 2002, 36쪽.

한편, 1992년을 보면 전체 106개의 이전업체 가운데 기계조립금속이 46개, 화학고무가 22개로 두 업종의 비중이 64.2%에 이른다. 종사자수의 비중으로 보면 기계조립금속이 16.8%, 화학고무가 78.1%로 두

업종을 합하면 94.9%에 이른다. 1992년은 다른 연도에 비해 좀 특수한 사정이 있었는데, 종업원 300인 이상의 대기업인 (주)국제상사, (주)우림전자, (주)삼영화성 등의 지역중견기업들이 이전하였다.<sup>25)</sup> 세계적인 신발기업이었던 국제상사의 이전은 부산경제에 큰 손실이었다. 그리고 유통·건설업체의 이전도 2개로 나타나고 있다.

〈표 5〉 1992년도 업종별 이전업체수 및 종사자수 (개, 명, %)

| 1992   | 업체수 |      | 종사자수  |      | 업체당종사자수 |
|--------|-----|------|-------|------|---------|
| 업체수    | 106 | 100  | 12524 | 100  | 118.2   |
| 음식료품   | 1   | 0.9  | 28    | 0.2  | 28.0    |
| 섬유의복   | 6   | 5.7  | 108   | 0.9  | 18.0    |
| 나무목재   | 10  | 9.4  | 180   | 1.4  | 18.0    |
| 종이인쇄   | 2   | 1.9  | 18    | 0.1  | 9.0     |
| 화학고무   | 22  | 20.8 | 9,777 | 78.1 | 444.4   |
| 비금속광물  | 2   | 1.9  | 24    | 0.2  | 12.0    |
| 제1차금속  | 6   | 5.7  | 90    | 0.7  | 15.0    |
| 기계조립금속 | 46  | 43.4 | 2,104 | 16.8 | 45.7    |
| 기타제조   | 9   | 8.5  | 171   | 1.4  | 19.0    |
| 유통건설   | 2   | 1.9  | 24    | 0.2  | 12.0    |

자료 : 부산상공회의소, 『1992년판 부산경제백서』, 1993, 87쪽.

대산업별로 분류한 <표 6>을 보아도 역외이전 기업은 압도적으로 제조업체임을 알 수 있다. 1977~1998년까지 약 20년 동안 1,370개의 기업에서 72,021명의 종사자가 시외로 이전하였는데, 이 가운데 제조업체는 1,238개에 69,033명이었다. 그리고 유통 및 건설업체가 95개에 2,283명이 이전하였고 기타 산업에서 37개 기업, 705명의 이전이 있었다. 1992년 이래 비제조업체의 이전이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1998년까지 역외이전업체는 주로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었다.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90.4%, 근로자수 기준으로는 95.9%에 달했다.

25)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제연구소, 『1992년도 부산경제백서』, 1993, 88쪽.

그러나 1999년부터는 제조업 이전 사업체수의 비중은 69.5%로 떨어졌다. 이후에도 계속 떨어져 2003년에는 54.3%로까지 낮아졌다. 근로자수의 비중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만 사업체수의 비중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반면 2000년대 이후에는 유통 및 건설업체의 비중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2003년 부산역외 이전 업체 가운데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32.8%가 유통 및 건설업이었고, 근로자수 기준으로는 27.5%를 점하였다. 1990년대 후반기에 들면서 역외이전 기업의 성격에 변화가 있었는데, 과거의 제조업을 대신하여 유통 및 건설업 등 서비스업종의 역외이전이 증가하고 있다.

〈표 6〉 산업별 이전업체수 및 종사자수

(개, 명, %)

| 구분     |      | 1977-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
| 계      | 업체수  | 1,370     | 141   | 247   | 251   | 296   | 381   |
|        | 근로자수 | 72,021    | 2,342 | 2,996 | 1,953 | 2,981 | 3,573 |
| 제조업    | 업체수  | 1,238     | 98    | 157   | 152   | 190   | 207   |
|        | 비중   | 90.4      | 69.5  | 63.6  | 60.6  | 64.2  | 54.3  |
|        | 근로자수 | 69,033    | 1,516 | 1,633 | 1,388 | 2,020 | 2,211 |
|        | 비중   | 95.9      | 64.7  | 54.5  | 71.1  | 67.8  | 61.9  |
| 유통및건설  | 업체수  | 95        | 1     | 20    | 14    | 67    | 125   |
|        | 비중   | 6.9       | 0.7   | 8.1   | 5.6   | 22.6  | 32.8  |
|        | 근로자수 | 2,283     | 30    | 302   | 130   | 423   | 983   |
|        | 비중   | 3.2       | 1.3   | 10.1  | 6.7   | 14.2  | 27.5  |
| 운수창고통신 | 업체수  |           |       |       | 8     | 6     | 9     |
|        | 비중   |           |       |       | 3.2   | 2.0   | 2.4   |
|        | 근로자수 |           |       |       | 64    | 64    | 31    |
|        | 비중   |           |       |       | 3.3   | 2.1   | 0.9   |
| 기타     | 업체수  | 37        | 42    | 70    | 77    | 33    | 40    |
|        | 비중   | 2.7       | 29.8  | 28.3  | 30.7  | 11.1  | 10.5  |
|        | 근로자수 | 705       | 796   | 1,061 | 371   | 474   | 348   |
|        | 비중   | 1.0       | 34.0  | 35.4  | 19.0  | 15.9  | 9.7   |

자료 : 부산상공회의소, 『2003년 상반기 시외이전 및 전입업체 현황』, 2003, 2쪽 ; 부산상공회의소, 『2004년 상반기 시외이전 및 전입업체 현황』, 2004, 3쪽; 부산상공회의소, 『2003년 시외이전 및 전입업체 현황』, 2004, 4쪽.

### 3. 규모별 추이

이전하는 기업의 규모는 시간이 흐르면서 영세화되는 흐름이 뚜렷하게 보인다. 규모가 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더 일찍 부산을 떠났다. 1977~1988년의 12년 동안 총 148개의 업체가 시외로 이전하였다. 연평균 12개의 업체가 이전하였는데, 지역에 소재하는 대기업들은 이 시기에 거의 이전하였다. 1977년부터 2000년까지 종업원 300인 이상 이전업체 중 이 시기에 이전한 업체의 비중이 70%를 넘어서고 있다. 반면 이후 1989~2000년의 12년간 시역을 빠져나간 업체수는 총 1,610개로 지난 1977~1988보다 무려 11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연평균 이전업체수 역시 134개로 1977~1988년의 12개와는 엄청난 격차를 보였다. 따라서 1990년대 들어서는 중소기업의 시외이전이 중심을 이루었다. 1990년대 들어 301인 이상의 대기업의 역외이전은 8개 업체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이전업체는 모두 중소기업이었다.<sup>26)</sup>

<표 7>에서 규모별 이전업체수 및 비중을 보면 1977~1988년 사이에 부산을 떠난 기업들은 301인 이상을 고용하는 업체가 16.9%에 달했으며, 21~300인 사이를 고용하는 업체는 68.9%였다. 반면 20인 이하를 고용하는 작은 기업은 14.2%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비율은 큰 변화를 겪었다. 20인 이하를 고용하는 업체비율은 1977~1991년에는 41.5%로 올라갔고, 1977~1997년 사이에는 다시 58.5%로 높아졌다. 1977~2003년 전 기간 동안 20인 이하를 고용하는 업체의 비중은 73.2%에 이르고 있다.

반면 21인 이상 고용업체의 비중은 매우 큰 폭으로 낮아졌는데, 21~300인 사이를 고용하는 업체비중은 1977~2003년 기간에 25.7%로 낮아졌고, 301인 이상을 고용하는 업체의 비중은 1.1%로 거의 미미한 비중으로 떨어졌다. 1977~1988년 사이에 301인 이상을 고용하는 업체의 비중은 16.9%에 이르렀지만 이후 이러한 큰 규모의 기업이전은 거의 없었다.

26) 부산광역시, 『앞의 책』, 2002, 96~97쪽.

〈표 7〉 규모별 이전 업체수 및 비중추이

(개, %)

| 구분      | 1977-1988 | 1977-1991 | 1977-1997 | 1977-1998 | 1977-2003 |
|---------|-----------|-----------|-----------|-----------|-----------|
| 20인 이하  | 21        | 185       | 705       | 837       | 2,859     |
|         | 14.2      | 41.5      | 58.5      | 61.1      | 73.2      |
| 21-300인 | 102       | 234       | 469       | 499       | 1,006     |
|         | 68.9      | 52.5      | 38.9      | 36.4      | 25.7      |
| 301인 이상 | 25        | 27        | 32        | 34        | 43        |
|         | 16.9      | 6.1       | 2.7       | 2.5       | 1.1       |
| 계       | 148       | 446       | 1,206     | 1,370     | 3,908     |

자료 : 부산상공회의소, 『2004년 상반기 시외이전 및 전입업체 현황』, 2004, 3쪽 ; 부산광역시, 『2001 부산경제백서』, 2002, 36쪽 ; 부산상공회의소, 『2003년 시외이전 및 전입업체 현황』, 2003, 3쪽 ; 부산광역시, 『1998-2000 부산경제백서』, 2002, 98쪽.

실제로 초기에 부산을 떠난 기업들은 대체로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알만한 업체들이었다. ‘한일그룹의 모기업인 경남모직은 1978년 1차 이전 이후 1986년 부산공장시설을 완전히 마산으로 이전하였다. 왕표 연탄으로 경동탄광 설립에 참여하였고, 경동기계(현 경동보일러)를 설립하였으며, 1979년 전국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되고 1981년 부산상공발전 기여 부산지장 표창과 1983년 석탑산업훈장, 그리고 동력자원부 장관상까지 받은 부산대표 기업 원진은 1987년 양산공장 준공으로 부산공장시대를 마감하였다. 1970년대 창업한 신발공장 태광실업은 1987년 김해로 이전하였다.’<sup>27)</sup>

<표 8>은 1989년에서 2003년까지 규모별 이전기업을 정리한 것이다. 1989-2003년 사이에 부산을 떠난 기업 가운데 20인 이하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비중은 79.7%로 절대적인 비중을 점했다. 반면 21-300인 사이는 20%, 그리고 301인 이상 기업의 비중은 0.4%에 그쳤다. 20인 이하의 영세한 기업의 이전이 급증한 것은 1990년부터였다. 이때부터 20인 이하 규모의 기업비중이 60%를 넘기 시작하였는

27) 박영구, 『현대부산의 제조업』, 부산발전연구원, 2005, 351쪽.

데, 1995년부터는 70%를 넘어서고 1998년부터는 80%를 상회하였다. 그러다 2001년부터는 90%를 넘어서 거의 영세한 기업들이 이전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이전기업의 영세화는 서비스 관련 기업들이 대규모로 이전하는 흐름과 관련이 있다.

<표 8> 규모별 이전업체 추이

(개, %)

| 구분      | 1989 | 1990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
| 20인 이하  | 43   | 62   | 59   | 63   | 56   | 76   | 80   | 114       |
|         | 43.4 | 60.8 | 60.8 | 59.4 | 61.5 | 58.5 | 72.7 | 77.6      |
| 21-300인 | 55   | 40   | 37   | 39   | 35   | 54   | 30   | 32        |
|         | 55.6 | 39.2 | 38.1 | 36.8 | 38.5 | 41.5 | 27.3 | 21.8      |
| 301인 이상 | 1    |      | 1    | 4    |      |      |      | 1         |
|         | 1.0  | 0.0  | 1.0  | 3.8  | 0.0  | 0.0  | 0.0  | 0.7       |
| 계       | 99   | 102  | 97   | 106  | 91   | 130  | 110  | 147       |
| 구분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1989-2003 |
| 20인 이하  | 131  | 132  | 117  | 218  | 230  | 288  | 353  | 2022      |
|         | 74.4 | 80.5 | 83.0 | 88.3 | 91.6 | 97.3 | 92.7 | 79.7      |
| 21-300인 | 45   | 30   | 24   | 29   | 21   | 8    | 28   | 507       |
|         | 25.6 | 18.3 | 17.0 | 11.7 | 8.4  | 2.7  | 7.3  | 20.0      |
| 301인 이상 |      | 2    |      |      |      |      |      | 9         |
|         | 0.0  | 1.2  | 0.0  | 0.0  | 0.0  | 0.0  | 0.0  | 0.4       |
| 계       | 176  | 164  | 141  | 247  | 251  | 296  | 381  | 2,538     |

자료 : 부산상공회의소, 『2004년 상반기 시외이전 및 전입업체 현황』, 2004, 3쪽 ; 부산광역시, 『2001 부산경제백서』, 2002, 36쪽 ; 부산상공회의소, 『2003년 시외이전 및 전입업체 현황』, 2003, 3쪽.

이전하는 기업의 영세화 흐름 속에서도 고용규모가 큰 기업의 이전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86년에서 2006년까지 종업원 수 200인 이상의 이전기업을 정리한 <표 9>를 보면 33개의 기업명단이 확인이 된다. 그리고 2000년에서 2006년 사이에만도 200인이 넘는 기업이 7개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는 300명을 넘는 업체도 1개 있었

다. 과거에 있었던 아주 큰 고용규모를 가진 대기업들은 아니지만, 중견기업의 이탈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꾸준히 있었다.

〈표 9〉 종업원 200이상 고용 이전업체 (명)

| 연도    | 기업체명        | 업종     | 이전시<br>종업원수 | 전출일자       | 이전지  |
|-------|-------------|--------|-------------|------------|------|
| 1986년 | 경남모직(주)     | 섬유     | 645         | 1986-12-31 | 마산   |
| 1986년 | (주)동우정기     | 자동차부품  | 440         | 1986-12-01 | 창원   |
| 1986년 | 홍아타이어공업(주)  | 타이어.튜브 | 411         | 1986-01-01 | 김해   |
| 1986년 | 태양실업        | 식품     | 307         | 1986-03-10 | 거제   |
| 1987년 | 한국센터럴자동차(주) | 자동차부품  | 499         | 1987-11-01 | 창원   |
| 1989년 | (주)성우금속     | 자동차부품  | 340         | 1989-06-07 | 울산   |
| 1989년 | 제일연마공업(주)   | 연마지석   | 278         | 1989-01-01 | 포항   |
| 1991년 | 세신정밀공업(주)   |        | 340         | 1991-10-01 | 양산   |
| 1991년 | 세명금속공업(주)   |        | 281         | 1991-09-20 | 김해진영 |
| 1992년 | (주)국제상사     | 신발     | 8647        | 1992-04-01 | 김해   |
| 1992년 | (주)삼영화성     | 신발     | 632         | 1992-09-16 | 김해   |
| 1992년 | 덕성금속공업사     |        | 450         | 1992-10-28 | 김해   |
| 1992년 | (주)우림전자     |        | 254         | 1992-05-07 | 양산   |
| 1992년 | 대호정기(주)     |        | 201         | 1992-10-19 | 김해   |
| 1993년 | (주)럭키연지공장   |        | 277         | 1993-05-12 | 울산   |
| 1994년 | 회훈상사        |        | 1003        | 1994-12-25 | 김해   |
| 1994년 | (주)킹스톤      |        | 258         | 1994-12-20 | 김해   |
| 1994년 | 영창마케팅(주)    |        | 246         | 1994-11-11 | 서울   |
| 1994년 | 동아화성공업(주)   |        | 235         | 1994-07-22 | 김해   |
| 1994년 | 삼화모방공업(주)   |        | 222         | 1994-06-01 | 양산   |
| 1995년 | 송원칼라(주)     |        | 232         | 1995-08-31 | 울산   |
| 1995년 | (주)성요사      |        | 230         | 1995-11-03 | 울산   |
| 1996년 | 태창기업(주)     | 섬유     | 766         | 1996-03-25 | 양산   |
| 1998년 | (주)동산씨앤지    | 화학     | 615         | 1998-07-13 | 천안   |
| 1998년 | (주)세정어패럴    | 섬유     | 329         | 1998-11-18 | 양산   |
| 1999년 | 천양항운(주)     | 운수창고통신 | 285         | 1999-02-19 | 포항   |

| 연도    | 기업체명             | 업종                | 이전시<br>종업원수 | 전출일자       | 이전지 |
|-------|------------------|-------------------|-------------|------------|-----|
| 2000년 | (주)태흥산업          | 기타사업              | 378         | 2000-03-08 | 울산  |
| 2003년 | 대상(주)군산전분당<br>공장 | 제조업(음식료품)         | 291         | 2003-03-17 | 군산  |
| 2005년 | 강남여객             | 자동차에의한여객<br>운수업   | 250         | 2005-07-25 | 마산  |
| 2005년 | 비엠금속             | 철강또는비철금속주<br>물제조업 | 228         | 2005-12-02 | 진해  |
| 2005년 | 송월타올(주)          | 기타섬유제품제조업         | 209         | 2005-12-05 | 양산  |
| 2006년 | (주)더베이직하우스       | 도.소매및소비자용<br>품수리업 | 293         | 2006-09-27 | 서울  |
| 2006년 | 유일산업             | 음식및숙박업            | 280         | 2006-08-16 | 대구  |

자료 : 부산상공회의소 제공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기업의 영세화는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이었다. <표 10>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나누어 이전한 업체의 평균 종사자수를 비교한 것이다. 1990년의 경우 102개의 업체에 3,025명이 역외로 이전하였는데, 사업체당 근로자는 29.7명이었다. 이 가운데 제조업은 업체수 100개에 2,998명이 이전하여 평균 30명이 이전한 반면, 서비스업에서는 2개 업체에 27명이 이전하여 평균 13.5명의 이전이 있었다. 서비스업체는 제조업체에 비해 영세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제조업체와 서비스업체 사이의 규모의 격차는 거의 없어지고 있다. 1997년에는 서비스업체의 평균 종사자수가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표 10> 제조업/서비스업별 역외이전 업체수, 종업원수 추이  
(개, 명, %)

| 구분 |          | 1990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
| 계  | 업체수      | 102   | 97    | 106    | 91    | 130   | 110   | 147   | 176   | 164   |
|    | 종업원수     | 3,025 | 3,028 | 12,524 | 2,459 | 4,234 | 2,419 | 3,473 | 3,280 | 3,452 |
|    | 업체당 종업원수 | 29.7  | 31.2  | 118.2  | 27.0  | 32.6  | 22.0  | 23.6  | 18.6  | 21.0  |

| 구분        |          | 1990  | 1991  | 1992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
| 제조업       | 업체수      | 100   | 96    | 104    | 87    | 124   | 84    | 124   | 145   | 154   |
|           | 종업원수     | 2,998 | 3,004 | 12,520 | 2,408 | 3,758 | 2,163 | 3,099 | 2,426 | 3,255 |
|           | 업체당 종업원수 | 30.0  | 31.3  | 120.4  | 27.7  | 30.3  | 25.8  | 25.0  | 16.7  | 21.1  |
| 서비스업      | 업체수      | 2     | 1     | 2      | 4     | 6     | 16    | 23    | 31    | 10    |
|           | 종업원수     | 27    | 24    | 24     | 51    | 476   | 256   | 374   | 854   | 197   |
|           | 업체당 종업원수 | 13.5  | 24.0  | 12.0   | 12.8  | 79.3  | 16.0  | 16.3  | 27.5  | 19.7  |
| 제조업<br>비중 | 업체수      | 98.0  | 99.0  | 98.1   | 95.6  | 95.4  | 76.4  | 84.4  | 82.4  | 93.9  |
|           | 종업원수     | 99.1  | 99.2  | 100.0  | 97.9  | 88.8  | 89.4  | 89.2  | 74.0  | 94.3  |

자료 : 부산광역시, 『2003 부산경제백서』, 2004, 34쪽 ; 부산광역시, 『2002 부산경제백서』, 2003, 33쪽, 438쪽 ; 부산광역시, 『1998-2000 부산경제백서』, 2002, 567쪽 ; 부산광역시, 『1999 시정백서』, 1999, 540쪽.

이전기업을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나누어 1977년 이래의 누적 기록을 보아도 영세화의 흐름이 역시 뚜렷하다. 1977~1996년 동안 업체당 종업원수는 63.4명이었는데, 1977~2001년 동안에는 39.5명으로 줄어들었다. 5년이 경과한 시점의 누적 통계에서 이처럼 차이가 나는 것은 최근으로 오면서 매우 영세한 업체의 이전이 많았기 때문이다.

〈표 11〉 제조업·서비스별 역외이전 사업체수, 종사자수 추이(명, 개, %)

| 구분   |         | 1977-96 | 1977-97 | 1977-98 | 1977-99 | 1977-01 |
|------|---------|---------|---------|---------|---------|---------|
| 계    | 업체수     | 1,030   | 1,206   | 1,370   | 1,511   | 2,009   |
|      | 종업원수    | 65,289  | 68,569  | 72,021  | 74,363  | 79,312  |
|      | 업체당종업원수 | 63.4    | 56.9    | 52.6    | 49.2    | 39.5    |
| 제조업  | 업체수     | 976     | 1,121   | 1,275   |         |         |
|      | 종업원수    | 64,057  | 66,483  | 69,738  |         |         |
|      | 업체당종업원수 | 65.6    | 59.3    | 54.7    |         |         |
| 서비스업 | 업체수     | 54      | 85      | 95      |         |         |
|      | 종업원수    | 1,232   | 2,086   | 2,283   |         |         |
|      | 업체당종업원수 | 22.8    | 24.5    | 24.0    |         |         |

자료 : 부산광역시, 『2003 부산경제백서』, 2004, 34쪽 ; 부산광역시, 『2002 부산경제백서』, 2003, 33쪽, 438쪽 ; 부산광역시, 『1998-2000 부산경제백서』, 2002, 567쪽 ; 부산광역시, 『1999 시정백서』 2000, 540쪽.

<표 12>는 2006년 한 해 동안 이전한 업체의 종업원 규모별 도수 분포표를 작성한 것이다. 이 자료를 보면 근년에 부산을 떠나는 기업들의 규모가 얼마나 영세한지 잘 보여주고 있다. 5명의 종업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28개로 전체 이전업체의 13.7%를 점하고 있으며, 6명의 종업원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20개로 9.8%를 차지하고 있다.

〈표 12〉 2006년도 역외이전 업체의 규모별 분포 (명, 개, %)

| 순위 | 종업원규모 | 업체수 | 누적도수 | 상대도수 | 누적상대도수 |
|----|-------|-----|------|------|--------|
| 1  | 5     | 28  | 28   | 13.7 | 13.7   |
| 2  | 6     | 20  | 48   | 9.8  | 23.4   |
| 3  | 7     | 13  | 61   | 6.3  | 29.8   |
| 4  | 8     | 8   | 69   | 3.9  | 33.7   |
| 5  | 9     | 11  | 80   | 5.4  | 39.0   |
| 6  | 10    | 16  | 96   | 7.8  | 46.8   |
| 7  | 11    | 11  | 107  | 5.4  | 52.2   |
| 8  | 12    | 8   | 115  | 3.9  | 56.1   |
| 9  | 13    | 4   | 119  | 2.0  | 58.0   |
| 10 | 14    | 9   | 128  | 4.4  | 62.4   |
| 11 | 15    | 4   | 132  | 2.0  | 64.4   |
| 12 | 16    | 8   | 140  | 3.9  | 68.3   |
| 13 | 17    | 3   | 143  | 1.5  | 69.8   |
| 14 | 18    | 2   | 145  | 1.0  | 70.7   |
| 15 | 19    | 3   | 148  | 1.5  | 72.2   |
| 16 | 20    | 3   | 151  | 1.5  | 73.7   |
| 17 | 21    | 2   | 153  | 1.0  | 74.6   |
| 18 | 22    | 7   | 160  | 3.4  | 78.0   |
| 19 | 23    | 2   | 162  | 1.0  | 79.0   |
| 20 | 24    | 2   | 164  | 1.0  | 80.0   |
| 21 | 25    | 1   | 165  | 0.5  | 80.5   |
| 22 | 26    | 1   | 166  | 0.5  | 81.0   |
| 23 | 28    | 2   | 168  | 1.0  | 82.0   |
| 24 | 29    | 1   | 169  | 0.5  | 82.4   |
| 25 | 30    | 2   | 171  | 1.0  | 83.4   |

| 순위 | 종업원규모 | 업체수 | 누적도수 | 상대도수 | 누적상대도수 |
|----|-------|-----|------|------|--------|
| 26 | 31    | 1   | 172  | 0.5  | 83.9   |
| 27 | 32    | 1   | 173  | 0.5  | 84.4   |
| 28 | 33    | 2   | 175  | 1.0  | 85.4   |
| 29 | 34    | 2   | 177  | 1.0  | 86.3   |
| 30 | 36    | 2   | 179  | 1.0  | 87.3   |
| 31 | 37    | 3   | 182  | 1.5  | 88.8   |
| 32 | 42    | 1   | 183  | 0.5  | 89.3   |
| 33 | 43    | 2   | 185  | 1.0  | 90.2   |
| 34 | 44    | 1   | 186  | 0.5  | 90.7   |
| 35 | 47    | 1   | 187  | 0.5  | 91.2   |
| 36 | 48    | 2   | 189  | 1.0  | 92.2   |
| 37 | 51    | 1   | 190  | 0.5  | 92.7   |
| 38 | 52    | 1   | 191  | 0.5  | 93.2   |
| 39 | 54    | 1   | 192  | 0.5  | 93.7   |
| 40 | 58    | 1   | 193  | 0.5  | 94.1   |
| 41 | 59    | 1   | 194  | 0.5  | 94.6   |
| 42 | 60    | 1   | 195  | 0.5  | 95.1   |
| 43 | 65    | 1   | 196  | 0.5  | 95.6   |
| 44 | 71    | 1   | 197  | 0.5  | 96.1   |
| 45 | 83    | 1   | 198  | 0.5  | 96.6   |
| 46 | 88    | 1   | 199  | 0.5  | 97.1   |
| 47 | 89    | 1   | 200  | 0.5  | 97.6   |
| 48 | 105   | 1   | 201  | 0.5  | 98.0   |
| 49 | 125   | 1   | 202  | 0.5  | 98.5   |
| 50 | 135   | 1   | 203  | 0.5  | 99.0   |
| 51 | 280   | 1   | 204  | 0.5  | 99.5   |
| 52 | 293   | 1   | 205  | 0.5  | 100.0  |
| 계  |       | 205 |      | 100  |        |

자료 : 부산상공회의소 내부자료

규모의 영세성은 5인 고용업체부터 34명을 고용하는 업체까지 매 단위 마다 업체가 있는 것으로도 확인이 된다. 그리고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업체는 5개에 불과하며, 200명을 넘는 업체는 2개이다. 3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업체는 없다. 한편, 누적도수를 통해 영세성의 정

도를 다시 파악해 보면 10인 이하를 고용하는 업체수가 96개로 전체 업체의 46.8%로 거의 절반을 점하고 있다. 20인 이하 규모는 151개로 73.7%, 30인 이하는 171개로 83.4%를 점하고 있다. 정확히 20명까지를 고용하는 업체의 비중이 80%를 점하고 있다.

#### IV. 이전의 사유와 원인

##### 1. 설문조사 결과

1990년 부산상공회의소의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기업의 이전 사유는 압도적으로 공장부지와 관련이 있다. 공장 확장의 필요성이라는 응답이 26.4%, 임대공장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0.5%로 46.9%가 공장용지를 찾아 이전한다는 응답을 보였다. 그리고 7.8%는 공해 때문에 이전한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런 경우 대도시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전을 하려고 하고 있다.

〈표 13〉 부산기업의 이전사유

(개, %)

| 이전 사유          | 업체수   | 비중   |
|----------------|-------|------|
| 임대공장이어서        | 889   | 20.5 |
| 공장확장이 시급하여     | 1,145 | 26.4 |
| 노동력 확보가 용이하여   | 377   | 8.7  |
| 공해 때문에         | 341   | 7.8  |
| 세계 금융 혜택을 위하여  | 329   | 7.6  |
| 기반시설이용의 편리를 위해 | 652   | 10.5 |
| 대기업과의 근접성 때문에  | 191   | 4.4  |
| 기타             | 416   | 9.6  |
| 계              | 4,340 | 100  |

자료 :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제연구소, 『1992년도 부산경제백서』, 1993, 89쪽.

주 : 원자료는 부산상공회의소, 『공장이전계획 실태』, 1990.

한편, 부산기업들이 외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는 40.9%가 공업입지의 확충을 꼽았고, 그 다음이 용도지역의 합리적인 조정 또는 완화로 응답하여 부산지역 내 공업용지의 허용을 제시하였다. 여기에 사상지역 정비가 9%, 지가 및 임대료의 안정 5.3%로 전체 응답 가운데 약 71%가 용지와 관련된 해결책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표 14〉 공장시외이전 방지대책에 관한 의견

(개, %)

| 제시방안                | 의견제시업체수 | 비중   |
|---------------------|---------|------|
| 공업입지의 확충            | 268     | 40.9 |
| 용도지역의 합리적인 조정 또는 완화 | 103     | 15.7 |
| 도심교통난의 해소           | 97      | 14.8 |
| 사상지역 정비의 조속 실시      | 59      | 9    |
| 세계 금융상의 혜택 확대       | 52      | 7.9  |
| 지가 및 임대료의 안정        | 35      | 5.3  |
| 기능인력 확보방안의 강구       | 23      | 3.5  |
| 공해방지에 대한 포괄적인 대책 강구 | 19      | 2.9  |
| 계                   | 656     | 100  |

자료 :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제연구소, 『1992년도 부산경제백서』, 1993, 89쪽.

주 : 원자료는 부산상공회의소, 『공장이전계획 실태』, 1990.

또한 사상공업지역 입주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전체의 1/3이 이전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2,278개의 기업가운데 762개가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1987년 말에 이미 대규모의 진출을 예고하였다.

〈표 15〉 사상공업지역 업종별 이전계획 업체수

(개, %)

| 구분      | 계         | 음식료품  | 섬유의복가죽 | 나무나무제품   | 종이인쇄출판 |
|---------|-----------|-------|--------|----------|--------|
| 전체제조업체수 | 2,278     | 43    | 284    | 128      | 54     |
| 이전계획업체수 | 762       | 14    | 82     | 29       | 17     |
| 비율      | 33.5      | 32.6  | 28.9   | 22.7     | 31.5   |
| 구분      | 화학고무 플라스틱 | 비금속광물 | 제1차금속  | 조립금속기계장비 | 기타     |
| 전체제조업체수 | 631       | 26    | 133    | 946      | 33     |
| 이전계획업체수 | 171       | 8     | 64     | 370      | 7      |
| 비율      | 27.1      | 30.8  | 48.1   | 39.1     | 21.2   |

자료 :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부산시사』 2, 1990, 1197쪽.

주 : 1. 1987년 말 기준. 2. 원자료는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지역 제조업현황』, 1988.

이전계획업체의 이전사유로는 시설확장을 목적으로 이전을 원하는 업체가 383개 업체, 임대공장과 관련된 업체가 246개 업체로 이들 두 가지 이유로 인해 이전을 희망하는 업체의 비율이 82.6%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공업입지와 관련된 것으로 사상공업지역의 공간적 한계와 공업입지로서의 불안정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표 16〉 사상공업지역 이전계획업체의 이전사유

(개, %)

| 이전사유       | 업체수 | 비중   |
|------------|-----|------|
| 시설확장을 위해   | 383 | 50.3 |
| 임대공장이므로    | 246 | 32.3 |
| 공해 때문에     | 53  | 7    |
| 공업지역이 아니므로 | 29  | 3.8  |
| 세제혜택을 위해   | 7   | 0.9  |
| 기타         | 42  | 5.5  |
| 계          | 762 | 100  |

자료 :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부산시사』 제2권, 1990, 1198쪽.

주 : 원자료는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지역 제조업현황』, 1988.

기업들이 부산을 떠나고자 하는 것은 사상공업지역만의 문제는 아니

었다. ‘더욱 더 우려되는 것은 기 이전업체 말고도 앞으로 부산에서 타 입지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이 무려 1,911개에 달하고 있고, 이 중 시 외이전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기업이 무려 476개나 더 있다는 것이다.’<sup>28)</sup>라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부산기업의 대탈출이 예고되어 있었다.

## 2. 이전의 원인

앞에서 이미 조금씩 시사한 바 있듯이 이전의 가장 중요한 직접적인 원인은 공업용지 문제였다. 부산지역은 신규 공업용지의 공급이 지연되고 기존 이전지마저 공장부지로 활용되지 않고 대부분 아파트 건축용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반해, 양산과 김해 등 인근지역에서는 지방공단 및 농공단지의 조성으로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고 넓은 공장부지를 확보하기가 쉬웠다.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으로 이전하면 울산·창원 등 인근공단에 소재하고 있는 모기업에 납품하기가 용이한 것도 시외이전이 증가하는 이유의 하나였다.<sup>29)</sup>

공업용지를 구하지 못함에 따라 공장 확장이나 새로운 설비투자를 하지 못하게 되고, 설사 땅을 구하더라도 임대료 상승에 따른 자금부담의 가중으로 곤란을 겪은 것도 이전의 원인이었음은 물론, 부산 시내에서의 극심한 교통난으로 인한 계열기업간의 물량 수급상의 애로 등의 사유도 이전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sup>30)</sup>

게다가 부산 인근 지역의 경우 용지가격이 저렴함은 물론 부산과 인접하여 기능인력 확보가 용이하며 출퇴근이 쉽고 또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이용 등이 편리하다는 이점도 작용하였다.<sup>31)</sup> 지가와 물류비

28)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제연구소, 『1992년도 부산경제백서』, 1993, 89쪽.

29) 부산광역시, 『1999 시정백서』, 1999, 542쪽.

30)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제연구소, 『1992년도 부산경제백서』, 1993, 89쪽.

31)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제연구소, 『1992년도 부산경제백서』, 1993, 89쪽. 이전지역 주변의 여성 등 유희인력을 활용하려는 동기도 일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부산광역시, 『1998 시정백서』, 1998, 487쪽.

절감에 더하여 공사수주와 관련하여 현장부근으로 이전하거나, 지역 주민의 민원발생 등으로 부산을 떠나기도 하였다.<sup>32)</sup> 부산외곽 도로확장 등으로 접근성이 용이해 진 것도 이전의 한 요인이었다.<sup>33)</sup>

반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으로의 이전도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것은 유통 및 정보처리업체를 위주로 내수시장이 보다 넓은 곳으로 영업 활동 영역을 이전하기 때문이다. 부산 경남권 시장은 이미 업체 간 과당경쟁과 구매력 저위로 포화상태에 이르러 입지를 아예 수도권으로 옮기는 흐름들이다.<sup>34)</sup>

## V. 제조업의 침체와 광역화의 한계

부산기업의 역외이전에 대해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해 왔다. 하나는 부산기업의 이탈로써 부산경제 침체의 원인이라는 시각이고 또 하나는 부산경제의 광역화라는 시각이다. 첫 번째 시각은 1980년대 이래 지속되어온 것으로 부산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을 붙잡아 두거나 새로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공업용지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다.

두 번째 시각은 대도시로 성장한 부산의 경우 더 이상 제조업을 모두 안고 가려는 생각을 하여서는 안되며, 인근 제조업 중심 도시를 포용하는 중추관리기능을 가진 광역권의 중심도시로 가야 한다는 시각이다.

이 두 개의 시각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복합적이고 보완적이라 할 수 있다. 부산기업의 이탈은 부산경제의 침체를 가져온 원인임과 동시에 인근도시의 팽창을 가져온 요인이기도 하다.

32) 부산상공회의소, 『2003년 시외이전 및 전입업체 현황』, 2004, 1쪽.

33) 부산상공회의소, 『2004년 상반기 부산지역 시외이전 및 전입업체 현황』, 2004, 1쪽.

34) 부산상공회의소, 『2003년 상반기 시외이전 및 전입업체 현황』, 2003, 3쪽.

## 1. 부산제조업의 침체

기업의 역외이전이 부산경제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은 제조업의 침체였다. 물론 <표 17>에서 보듯이 부산제조업의 사업체와 종사자의 절대적인 수치가 바로 감소하지는 않았다.

〈표 17〉 부산제조업의 주요지표

(개, 명, 백만원, 2000년 불변가격 기준)

| 연도   | 사업<br>체수 | 월평균<br>종사자수 | 사업체당<br>종사자수 | 사업체당<br>생산액 | 연도   | 사업<br>체수 | 월평균<br>종사자수 | 사업체당<br>종사자수 | 사업체당<br>생산액 |
|------|----------|-------------|--------------|-------------|------|----------|-------------|--------------|-------------|
| 1963 | 1,981    | 69,025      | 34.8         | 968.3       | 1982 | 4,659    | 344,719     | 74           | 3,082.4     |
| 1966 | 2,223    | 102,890     | 46.3         | 1,342.6     | 1983 | 4,636    | 355,494     | 76.7         | 3,324.5     |
| 1967 | 2,160    | 116,526     | 53.9         | 1,816.1     | 1984 | 4,877    | 352,078     | 72.2         | 3,369.7     |
| 1968 | 1,954    | 129,607     | 66.3         | 2,151.7     | 1985 | 5,207    | 368,352     | 70.7         | 3,272       |
| 1969 | 2,168    | 141,132     | 65.1         | 2,134.5     | 1986 | 5,739    | 410,928     | 71.6         | 3,339.2     |
| 1970 | 2,087    | 137,654     | 66           | 2,397.6     | 1987 | 6,237    | 430,952     | 69.1         | 3,364.1     |
| 1971 | 1,939    | 137,913     | 71.1         | 2,786.9     | 1988 | 6,554    | 412,653     | 63           | 3,208.7     |
| 1972 | 2,327    | 164,546     | 70.7         | 2,668.8     | 1989 | 6,858    | 383,483     | 55.9         | 2,943.5     |
| 1973 | 2,023    | 191,538     | 94.7         | 4,359.1     | 1990 | 7,076    | 368,443     | 52.1         | 3,086.4     |
| 1974 | 1,996    | 219,942     | 110.2        | 5,062       | 1991 | 7,012    | 313,559     | 44.7         | 2,849.6     |
| 1975 | 2,531    | 250,790     | 99.1         | 3,825.9     | 1992 | 7,631    | 283,864     | 37.2         | 2,433.9     |
| 1976 | 2,805    | 312,733     | 111.5        | 4,307       | 1993 | 9,262    | 265,535     | 28.7         | 1,964.1     |
| 1977 | 3,055    | 349,284     | 114.3        | 4,351.7     | 1994 | 9,304    | 245,498     | 26.4         | 1,938.8     |
| 1978 | 3,287    | 369,196     | 112.3        | 4,325.2     | 1995 | 9,546    | 232,735     | 24.4         | 2,000.1     |
| 1979 | 3,521    | 351,172     | 99.7         | 4,142.8     | 1996 | 9,494    | 219,901     | 23.2         | 2,000.8     |
| 1980 | 3,639    | 319,381     | 87.8         | 3,746.5     | 1997 | 8,965    | 198,959     | 22.2         | 2,009.5     |
| 1981 | 4,057    | 336,132     | 82.9         | 3,547.2     | 1998 | 8,220    | 174,131     | 21.2         | 2,057.1     |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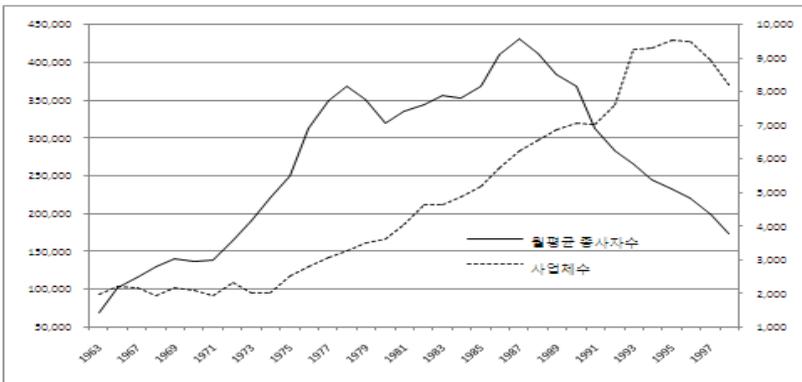
주 : 1. 8차 개정자료임. 2. 1999년부터는 조사대상이 달라짐

제조업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3>이

다. 사업체수의 경우 1995년까지 꾸준히 늘어났다. 1963년 1,981개에서 1995년에는 9,546개로 늘어났는데, 1993년에 폭발적인 증가가 있었다. 1996년부터 빠른 속도로 제조업 사업체수가 줄어드는 흐름이 보이고 있다. 절대적인 사업체수로만 놓고 본다면 기업의 역외이전이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제조업체수의 감소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종사자수의 그림은 두 개의 봉우리를 보여준다. 기업이전이 시작된 직후인 1978년을 정점으로 바로 종사자수의 감소가 나타난다. 이후 당분간 완만한 증가세로 돌아서지만 그 흐름은 강하지도 않고 길지도 않다. 결국 제조업 종사자수는 1986년 410,928명으로 정점에 이르렀다가 가파른 하락세를 보인다. 기업의 역외이전의 효과는 사업체수에서는 제대로 나타나지 않지만 종사자수에서는 뚜렷한 흔적을 남기고 있다.

〈그림 3〉 부산제조업의 사업체 및 종사자수 추이 (개, 명)



자료 : 통계청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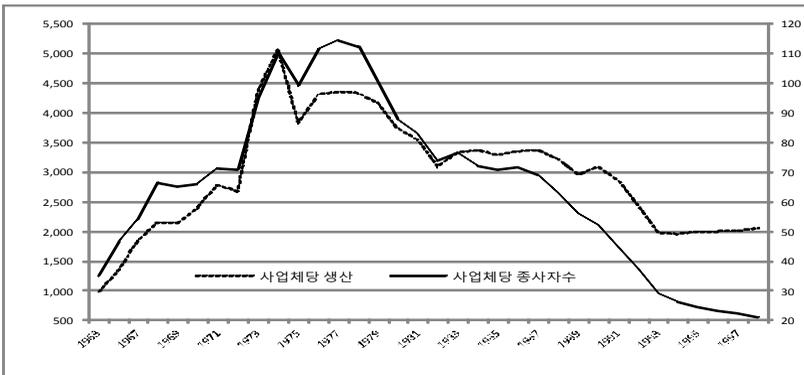
이러한 흐름은 종사자수와 생산액을 사업체로 나눈 지표를 통해 보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우선 사업체당 종사자수는 1977년 114.3명으로 정점에 이른 후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하여 1998년에는 21.2명으로 거의 1/5로 줄어들었다. 기업의 역외이전이 시작된 1977년

이 정점이고 이후 지속적이고 가파른 하락추세가 인상적이다.

부산 제조업체의 사업체당 생산액도 유사한 추이를 보여준다. 2000년 불변가격으로 환산한 사업체당 생산액은 1974년이 정점이었다가 이후 감소하다 다시 증가하였는데, 1977년을 전기로 줄어드는 흐름이 고착화되었다. 사업체당 생산액은 4,351.7백만원이었는데, 이후 줄어들어 1998년에는 절반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1974년은 중화학공업화가 본격화된 해인데, 그 영향과 함께 기업의 이탈이 시작된 첫 해인 1977년의 영향이 그대로 통계에 나타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부산의 제조업은 절대적으로는 사업체수의 증가와 함께 성장이 있긴 하였지만, 중화학공업화로부터의 소외와 기업의 이전으로 인해 1970년대 말부터 상대적인 정체에 접어들었다. 그러한 정체는 특히 기업의 역외 이전시기와 정확히 궤를 같이 하였다.

〈그림 4〉 부산 제조업의 업체당 생산액 및 종사자수 추이  
(백만원, 명, 2000년 불변가격 기준)



자료 : 통계청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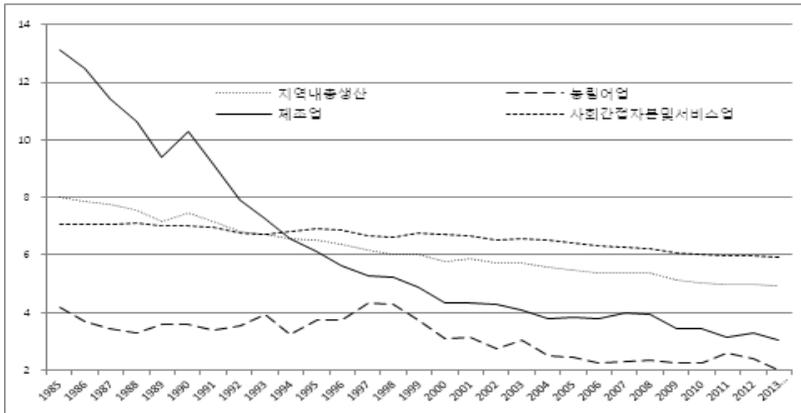
이는 무엇보다 일자리의 부족과 인구유출에서 그 영향이 단적으로 나타났다. <그림 1>에서 보았듯이 인구증가폭은 1970년대 말부터 줄어들기 시작하였는데,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실제로 인구감소가

시작되었다. 광역시 출범이후 거의 모든 연도에서 부산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인구의 감소와 함께 높은 실업률이 부산을 엄습하였다. 1990년대 부산의 실업률은 다른 시도에 비해 높았는데, 이것은 무엇보다 기업이전의 영향이었다.<sup>35)</sup>

그리고 이러한 영향의 종합적인 결과는 부산경제력의 약화였다. 부산의 지역내총생산이 전국에서 점하는 비중은 198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 <그림 5>는 1985년 이래 부산의 주요경제지표가 모두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가파른 제조업의 쇠퇴가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물론 제조업 지표의 하락이 모두 기업이전 때문만은 아니다. 경공업 위주의 공업구조의 한계가 근저에 놓여있다. 그렇지만 큰 기업들이 이전함으로써 공업구조조정이 지연되었던 것은 부산제조업에 큰 타격이었다.

<그림 5> 부산경제의 전국 비중 추이

(2010년 불변가격 기준)



자료 : 통계청 자료

35) 부산광역시, 『앞의 책』, 2002, 97쪽.

## 2. 광역화와 그 한계

부산의 역외이전 지역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해와 양산이 중심이었다. 역외 이전업체의 대부분이 부산광역경제권 내에서 특히 부산에 아주 인접한 지역으로 입지를 변경하고 있다. 이는 경남지역의 도시간 산업분포를 보아도 명확히 드러난다. 경남의 경우 마산·창원·진해·김해·양산·밀양 등 부산광역경제권의 범위에 포함된 지역의 면적은 경남 전체의 23.6%에 불과하지만 인구는 경남 전체의 55.9%, 제조업 생산액의 76.8%, 종사자의 74.2%를 차지하고 있다.<sup>36)</sup> 거제시 조선산업을 제외하면 경남제조업의 대부분이 부산광역경제권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부산인접권의 진해·김해·양산만을 포함하더라도 경남제조업 사업체수의 42.4%, 종사자의 32%, 생산액의 24.1%, 부가가치의 24.7%를 점한다.<sup>37)</sup>

1970년대 중반 이래 부산과 인근도시 간에 보이는 광역화의 흐름은 인구측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부산+양산+김해의 인구가 한국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이래 꾸준한 비중을 대체로 유지하였다. 부울경의 동남권 인구가 전국에서 점하는 비중도 최근 들어 좀 낮아지긴 했지만 대체로 일정비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했다. 부산+양산+김해+창원인구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추세다. 더욱이 동남권 인구에서 부산+양산+김해+창원 인구가 점하는 비중도 거의 일정한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동남권 전체 인구가 한국전체 인구에서 점하는 비중이 대체로 일정한 비중을 유지하는 가운데 부산+양산+김해(+창원)의 인구비중도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부산만의 인구비중은 낮아졌지만 부산과 인근도시의 인구를 합한 비중은 거의 줄지 않았다. 이것은 부산을 떠난 많은 인구들이 부산을 떠난 기업들이 정착한 부산인근 지역으로 이주하였음을 시사한다.

36) 부산광역시, 『앞의 책』, 2002, 567쪽.

37) 부산광역시, 『앞의 책』, 2002, 568쪽.

〈표 18〉 부산권 인구 추이

(명, %)

| 구분          | 1975       | 1985       | 1995       | 2000       | 2010       |
|-------------|------------|------------|------------|------------|------------|
| 전국          | 34,704,286 | 40,448,486 | 44,608,726 | 46,136,101 | 48,580,293 |
| 부산광역시       | 2,580,472  | 3,595,405  | 3,814,325  | 3,662,884  | 3,414,950  |
| 울산광역시       | 377,619    | 669,713    | 967,429    | 1,014,428  | 1,082,567  |
| 경상남도        | 2,775,061  | 2,766,340  | 2,878,193  | 2,978,502  | 3,160,154  |
| 김해시         | 140,594    | 158,603    | 256,370    | 331,979    | 494,510    |
| 양산시         | 59,431     | 80,964     | 163,351    | 191,975    | 252,507    |
| 창원시         | 565,855    | 813,984    | 1,048,933  | 1,079,359  | 1,058,021  |
| 동남권(부울경)    | 5,733,152  | 7,031,458  | 7,659,947  | 7,655,814  | 7,657,671  |
| 동남권/전국      | 16.5       | 17.4       | 17.2       | 16.6       | 15.8       |
| 부산+양산+김해    | 2,780,497  | 3,834,972  | 4,234,046  | 4,186,838  | 4,161,967  |
| 부양김/전국      | 8.0        | 9.5        | 9.5        | 9.1        | 8.6        |
| 부양김/동남권     | 48.5       | 54.5       | 55.3       | 54.7       | 54.4       |
| 부산+양산+김해+창원 | 3,346,352  | 4,648,956  | 5,282,979  | 5,266,197  | 5,219,988  |
| 부양김창/동남권    | 58.4       | 66.1       | 69.0       | 68.8       | 68.2       |
| 부양김창/전국     | 9.6        | 11.5       | 11.8       | 11.4       | 10.7       |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작성

주 : 1. 인구총조사 결과. 2. 2010년 행정구역 기준으로 환산한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기업의 역외이전으로 창출된 광역화는 일정한 한계를 갖는 것이었다. 부산기업들이 인근지역으로 이전하여 만들어진 광역경제권이 제대로 작동되고 또 광역화의 이점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선 인근지역에 대해 확고한 중추관리기능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부산은 서울이 아니었다. 서울이 인근의 경기지역에 제조업을 모두 내주고도 경제 활력을 유지하는 것은 중추관리기능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부산은 제조업의 중추기능인 연구, 금융, 정보, 행정, 회계, 법률서비스 등 공업력이 집중된 동남공업벨트의 중추관리기능을 가져야 했으나<sup>38)</sup> 수도권 일극집중으로 중추관리기능을 제대로 확충

하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전을 계기로 성장산업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조정하여야 했음에도, 이것도 이루지 못했다. 산업용지의 부족과 높은 토지가격이라는 현실적인 장벽과 기업들의 인식부족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할 있는 신규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부산 기업의 역외이전이 만들어낸 광역경제권은 유기적 연계성을 결여한 반쪽 광역화였다.

## VI. 결론

부산의 기업이 역외로 이전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후반부터였다. 부산기업의 역외이전은 과잉성장의 결과였다. 부산이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팽창하면서 과대성장 도시의 한계가 드러났다. 인구의 증가는 주택수요의 증가와 함께 지가상승을 가져왔고, 공업용지의 고갈은 기업의 투자를 방해하였다. 이에 더하여 서울과 함께 성장억제 도시로 지정되면서 기업의 외곽이전이 추진되었다.

부산에서 상대적으로 비싸진 토지를 팔고 대신 부산외곽지역에서 싸고 넓은 용지를 찾아 떠나는 것이 역외이전의 핵심이었다. 부산의 지가를 인근지역보다 낮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윤극대화를 위해 입지를 결정하는 기업의 행동에서는 자연스런 현상이었다.<sup>39)</sup>

부산을 떠난 기업들은 주로 대부분 양산과 김해에 자리 잡았으며, 부산의 주력업종인 기계금속과 화학고무업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체들이 먼저 이전하였다. 1980년대까지 이전기업 숫자 자체는 많지 않았지만 정작 큰 기업들은 이 때 많이 이전하였다. 1990년대 이후 역외이전이 갑자기 증가하였고, 2000년대에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체도 이전하기 시작하였다. 수도권으로의 이전도 늘어났다.

38) 부산광역시, 『앞의 책』, 2002, 97쪽.

39) 부산광역시, 『앞의 책』, 2002, 566쪽.

부산기업의 역외이전은 부산경제 특히 제조업의 침체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었다. 대기업이 떠나면서 제조업의 구조조정은 지연되었고, 새로운 산업을 받아들일 투자도 지체되었다. 기업이전이 시작되었던 시기부터 제조업의 상대적 침체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부산제조업은 비중하락을 겪었다. 그 결과 전국에서 접하는 부산경제의 비중이 동반 하락하면서 일자리의 부족과 인구유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런 한편 부산기업의 이전은 부산경제의 광역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부산경제의 광역화는 반쪽 광역화였다. 중추관리기능의 집적이 상대적으로 약한 부산은 서울과는 달랐다. 대도시 성장억제정책의 주된 목표였던 서울의 집중현상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부산의 성장만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하였다. 서울은 제조업을 인근지역으로 보내고 중추관리기능을 중심으로 한 산업을 발전시켰지만 부산은 그러지 못했다.

부산기업의 역외이전과 함께 온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은 결국 산업용지의 확보와 중추관리기능의 확충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었다. 1996년에 부산은 성장억제지역에서 제외됨으로써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야 부산경제를 제약하고 있었던 제도적인 장애가 제거되었다.<sup>40)</sup> 강서구와 기장군에 잇달아 산업단지들이 건설되면서 공업용지 확충도 이루어졌다.

그 결과 이제는 부산으로 들어오는 기업도 많아졌다. 전입기업 증가현상은 1990년대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새로운 움직임이며,<sup>41)</sup> 1996년부터 1999년까지 약간씩 증가하다가 2000년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녹산, 신호산업단지 등이 개발 분양됨으로써 부산의 제조업 용지 공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전입업체들의 전 소 재지를 보면 역설적이게도 과거 주된 진출지였던 양산과 김해로 나타

40) 부산광역시, 『앞의 책』, 2002, 93쪽.

41) 부산광역시, 『2001 부산경제백서』, 2002, 448쪽.

나고 있는데, 과거의 진출지가 이제는 부산으로의 전입업체의 주 발원지가 되고 있다.<sup>42)</sup> 당초 부산기업들이 이전하여 만들어진 광역화가 이제는 반대로 인근지역의 기업이 부산으로 옮겨오면서 기존의 광역화를 보완하고 있다.

중추기능 확보노력도 강화되고 있다. 혁신도시의 건설로 인한 금융, 해양, 영상 관련 기능의 집적 등은 그러한 예의 하나다. 유통과 교육, 의료, 법률, 기업정보 그리고 연구에서의 중추기능강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한 노력들이 성과를 거둘 때 기업이전으로 인한 광역화의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대래, 『부산의 기업과 경제, 세화』, 2013.
- \_\_\_\_\_, 『부산경제의 성장과 정체』, 부산학교재편찬위원회, 『부산학개론』, 2015.
- \_\_\_\_\_, 『부산인구의 추이와 고령화』, 『부산학개론』, 부산학교재편찬위원회, 2015.
- 김태현, 『부산기업사』, 부산발전연구원, 2004.
- \_\_\_\_\_, 『부산기업의 어제와 오늘』, 『부산학개론』, 부산학교재편찬위원회, 2015.
- 박섭·장지용, 『부산의 기업과 기업가단체(1900-1945)』, 해남, 2010.
- 박영구, 『현대 부산의 제조업 1945-2000 : 통계와 발전』, 부산발전연구원, 2005.
- 부산광역시, 『1998-2000 부산경제백서』, 2002.
- \_\_\_\_\_, 『2001 부산경제백서』, 2002.
- \_\_\_\_\_, 『2002 부산경제백서』, 2003.

---

42) 부산상공회의소, 『2004-2006 부산경제백서』, 2007, 342쪽.

\_\_\_\_\_, 『2003 부산경제백서』, 2004.

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부산시사』 제2권, 1990.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제연구소, 『1992년도 부산경제백서』, 1993.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제연구소, 『1994년도 부산경제백서』, 1995.

부산상공회의소, 『2004-2006 부산경제백서』, 2007.

\_\_\_\_\_, 『2003년 시외이전 및 전입업체 현황』, 2004.

\_\_\_\_\_, 『2003년 상반기 시외이전 및 전입업체 현황』, 2003.

\_\_\_\_\_, 『2004년 상반기 부산지역 시외이전 및 전입기업체 현황』, 2004.

부산직할시, 『1977 시정백서』, 1977.

\_\_\_\_\_, 『1978 시정백서』, 1978.

\_\_\_\_\_, 『1979 시정백서』, 1979.

\_\_\_\_\_, 『1980 시정백서』, 1980.

\_\_\_\_\_, 『1981 시정백서』, 1981.

\_\_\_\_\_, 『1982 시정백서』, 1982.

\_\_\_\_\_, 『1984 시정백서』, 1984.

\_\_\_\_\_, 『1985 시정백서』, 1985.

\_\_\_\_\_, 『1986 시정백서』, 1986.

\_\_\_\_\_, 『1987 시정백서』, 1987.

\_\_\_\_\_, 『1988 시정백서』, 1988.

\_\_\_\_\_, 『1989 시정백서』, 1989.

\_\_\_\_\_, 『1990 시정백서』, 1990.

\_\_\_\_\_, 『1991 시정백서』, 1991.

\_\_\_\_\_, 『1992 시정백서』, 1992.

\_\_\_\_\_, 『1994 시정백서』, 1994.

부산광역시, 『1995 시정백서』, 1995.

\_\_\_\_\_, 『1996 시정백서』, 1996.

\_\_\_\_\_, 『1997 시정백서』, 1997.

\_\_\_\_\_, 『1998 시정백서』, 1998.

\_\_\_\_\_, 『1999 시정백서』, 1999.

|           |            |            |
|-----------|------------|------------|
| 투고일       | 심사완료일      | 게재확정일      |
| 2015.9.25 | 2015.10.22 | 2015.11.16 |

**【Abstract】**

**Study on the Migration of Busan Companies to Other  
Regions during the 1980-90s**

Kim, Dae-rae\*

This paper is about Busan companies migration since the late 1970s. This phenomenon has been attributable to downturn of Busan's economy after 1980s, but there has been little research done on the period prior to 1980s. This paper fills the gap in the current discourse on this issue. It also tries to analyze impacts and implications of migration of these companies.

It was late 1970s that companies in Busan started moving out of the city. This movement was a result of overgrowth of Busan; an overly expanded city, Busan, exposed its own limitations of exaggerative growth. Growing population brought increasing price of lands with increasing demand on housing, thereby absorbing lands available for industrial sites. This hindered further investment on companies. During that time, as Busan was advised to control overgrowth, the government levied high council tax on newly built factories. Under such circumstances, firms started to leave Busan since the late 1970s.

The main point of firms' migration is to find cheap and spacious land while selling comparatively expensive Busan's land. It was hard to prevent firms from leaving Busan for seeking higher profits under the circumstance that it was impossible to decrease land prices of Busan. A fact-finding committee also

---

\* Silla University, Division of International Trade

found that securing spacious land was a key point of moving out from Busan.

Firms that had left Busan mainly relocated in Yangsan and Gimhae. Busan's core businesses--machine metal, and rubber chemicals-- also transferred. The larger a firm was, the earlier it made its move. The absolute number of firms moving out of Busan was small until 1980s, but all the more most of big firms swiftly made their move first during this time. It was after 1990s that the number of firms moving out increased dramatically. From 2000s, not only manufacturing industry, but also service industry started to move out from Busan. At the same time, transferring into the capital area also increased; that means, as IT industry developed, related industry began to move to the capital area, seeking out new markets.

The migration brought downturn in Busan's economy, especially manufacturing one. As big firms left, manufacturing industry's restructuring was delayed, and investment on new industries was also deferred. Busan, incapable of enjoying big firm's innovative capabilities, was difficult to maintain vitality in economic growth. As a result, Busan's economy that once partakes larger part of national economy started forming smaller part of it, thereby bringing a jobs crunch and population outflow.

On the other hand, Busan firms' transfer widened the range of economic activities of Busan. However, this expansion was not completely successful in that, for example, Gimhae and Yangsan, main areas that firm transferred, did not operate primarily based on Busan network but on other cities. This means that Busan's role as a core managerial function was much weaker than Seoul. Busan's weakness could not resolve the over-dependency on

Seoul-centered economic bloc, but also failed to stir Busan's economic growth. Seoul successfully transferred firms to outskirts and continued to play its role as a core managerial function, but Busan failed to follow the same path as Seoul did.

The way to resolve Busan's economic depression following the migration of firms should lie in acquiring a core managerial function through alluring firms within Busan city by securing industrial sites. This is because it is important to allure rising, new companies into Busan, and, moreover, to make companies that had left before come back to Busan's sphere of influence. The recent trends including firms' transfer into Busan and expansion of metropolitan transportation network are to overcome economic downturn that was resulted from previous migration of firms.

\* Key words : Busan, firm's migration, widening the range of economic activities, a core managerial function, growth control of a city, industrial sites